

앞장서서 방향 돌리기

| 전희식 · 김정임 |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저자는 과거 상황을 계속 재생연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영상을 재생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막힌 에너지를 풀어 드리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정상인이라 여겨지는 우리 역시 하나의 상에 붙잡혀 빠져나오지 못할 때 짐 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합니다(편집자 주).



백운역 할아버지를 찾아 서울까지 갔던 사건은 나로서는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였고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치유였다고 할 수 있다.

무더위가 예년과 달리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던 8월 말 어느 날이었다.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차려 놓은 아침을 드시지도 않고 어머니는 서울 여동생 뒷집에 ‘백운역 할아버지’가 와서 침을 뇌주고 있다면서 가자는 것이었다. 빨리 안 가면 ‘백운역 할아버지’가 가버린다고 불이 나게 서두르셨다.

늘 그렇듯이 보따리를 뭉쳐가지고 먼저 마루로 나가셨다. 전화를 해보고 가자고 했더니 어머니는 그야말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나를 향해 쏘아붙이셨다.

“전화하지 마아~. 소문나면 사람들이 몰려 올까봐 집에 있냐고 전화하면 집에 없다고 한다니까!”

전화를 걸어 수작을 부리려는 내 생각을 아셨을까? 어머니는 전화기에 손도 못 뻗치게 하셨다.

이미 며칠 전 새벽 1시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역시 소낙비가 오고 있었는데 자다가 일어난 어머니가 고향인 함양군 안의에 어서 가자고 하셨다.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외사촌 여동생이 와 있는데 지금 가면 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다.

부스스 눈을 부비며 일어난 나는 깜깜한 새벽이 주는 암담함에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어찌해야 좋을지 물어보다가 영영어버린 사건이었다.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 전화기를 들고는 어머니 보라고 이러쿵저러쿵 통화를 하는 척 하고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놀러 앉힌 적이

있었다.

이때 억지로 어머니를 눌러 앉힌 것이 화근이 되지 않았나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머니 말씀대로 서울을 가자고 했다. 이참에 여동생 집에 가 보자 싶었다. 뿌리를 뽑자는 심정으로 나선 것이다.

내가 흔쾌히 어머니 주장을 받아 주니까 어머니의 눈초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서울에 가야겠다는 의지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외사촌네 집에 엇그제 갔었으면 이런 일 없다 아이가. 조카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더 못 기다리고 부산으로 가버렸다 아이가.”

한결 부드러워진 어머니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을 뒤집을 듯이 퍼붓는 소낙비가 가끔씩 잦아들기도 했지만 내 트럭이 고속도로에 올라서기까지 날씨는 아주 위협적이었다. 어려울 때마다 전화해서 도움을 구하던 울산 사는 분으로부터 “서울로는 가지 말고 일단 고속도로를 달려보라”는 말대로 장수 나들목을 통해 대신고속도로로 들어갔는데 정작 고속도로에 들어가자 ‘어디 해 볼대로 해 보자’하는 오기가 생기면서 도리어 마음이 편해졌다.

88고속도로로 옮겨 타고 남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면서 불안스레 한 마디 하는 것이었다.

“아니. 서울이 와 이리 머노? 아직도 서울 아이가?” 하시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전깃불이 들어오듯 머리가 환해졌다. 살아 계시지도 않은 ‘백운역 할아버지’가 비현실적인 인물이듯이 어머니 마음속의 ‘서울’은 우리 지도상의 서울이 아님을 간파한 것이다.

“비가 와서 빨리 못 달려서 그래요. 어머니 이제 다 왔어요.”

남원으로 빠져서 여기가 서울이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서울이 너무 멀다고 하면서 뭘 좀 먹고 가자고 했다. 이때부터 주도권은 완전히 내게로 넘어오게 되었고 서로 처지가 뒤바뀌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 오후 여섯시까지 나는 ‘백운역 할아버지’를 찾아 여기저기 계속 쏘다니고 어머니는 나를 만류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맛있는 집’.

우리가 차를 세운 곳이다. 아직 점심은 이른 시간이라 식당 주차장은 비어 있었다. 차량들은 없었지만 소낙비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여유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늘이 쪼개졌나. 와이락꼬?”

어머니는 캄캄해지는 하늘이 걱정이 되시나보다. 이래가지고는 백운역 할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머니 걱정을 애써 무시하고 나는 씩씩하게 식당에 들어가 먹을거리를 찾았다.

두부요리 전문 식당이었는지 두부를 삶아 건지고 있는 게 보여 갓 삶은 두부 한 모를 사왔다. 따끈따끈한 두부에서 고소한 콩 냄새가 났다. 푹 김치도 함께 사왔다. 두부를 본 어머니는 크게 반가워했다. 트럭 안에서 어머니랑 붙어 앉아 간장을 무릎에 흘려가며 두부를 먹었다. 트럭의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장대비는 콩 볶는 소리를 냈다.

누가 보면 늙은 우리 모자가 연인처럼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고집불통의 노인네가 우물우물 콧물을 대롱대롱 매달고 두부를 맛있게 잡수고 계셨다. 괜히 쳐다보는 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머니가 두부를 한 젓갈 떼어내서 내 입에 넣어 주셨다. 두 사람 다 마음이나 배가 두둥실 불러 가지고 식당 주차장을 나왔다.

나는 남원 터미널 옆 한 건물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백운역 할아버지가 이사 가셨다네요”라고 허위보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

느냐는 눈치를 어머니가 내게 보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제가 약도를 잘 받아 왔어요.”

건물 우체통에 꽂혀 있던 광고 안내전단을 보여 주면서 이사 간 곳으로 찾아 가자면서 차를 돌렸다.

나는 전주로 향했다. 어머니는 상당부분 백운역 할아버지에게서 풀려나고 있었다.

“나락 모감지가 커질라든 나락 꽃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비가 무장 더 오네? 이래각꼬는 나락 꽃 다 떨어지겠다.”

“그러게요. 햇별이나야 나락이 영글 텐데요.”

“내리 사흘이나 와서 인자 안 오지, 시푸디마는 장마 꼬트리기가 기네.”

“비는 며칠 더 온대요.”

“산이 저거 맵기로 하늘에 닿아 있으믄 비가 오는 기라. 하늘이 높이 올라 가믄 맑아지는 기고.”

“그보다도 백운역 할아버지가 어디 안 가고 집에 계셔야 할 텐데 비 오는데 어디 안 가셨겠죠?”

“그걸 누가 아노. 두 발 성한 사람이 오뎀 못 가건노.”

백운역 할아버지를 못 만날 수도 있다는 투였다. 어머니는 서울이 참 넓다고 하셨다. 한 시간을 달렸으니 그럴 만도 했다. 전주에 들어와서 중앙 대로를 달리는데 큰 사거리 건물에 우민교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를 향한 정지 신호판 같았다. 잠시 비가 멎고 터진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햇살이 교회를 비추며 우리를 그쪽으로 안내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 바로 저기예요. 교회 뒷집으로 이사 갔다고 했거든요. 다

왔어요.”

건물 뒤로 차를 대자 소낙비가 다시 쏟아졌다. 우산을 받쳐 들었지만 빗줄기가 옆으로 후려쳤다. 건물로 올라간 나는 화장실로 가서 볼 일부러 봤다. 맥이 탁 풀어지는 게 스르르 눈이 감겼다. 목욕탕에 가서 폭 쉬고 싶었다. 목욕탕 가 본 지가 반년이 넘었지 아마. 어머니가 집에 오시고 단 한 번도 목욕탕이나 이발소를 가지 못했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수영도 면도를 할 겨를이 없어 가위로 잘라내고 머리는 이발기로 박박 밀고 있었다.

“집에 있더나?”

“아뇨. 저쪽에 있는 노인정에 갔대요.”

나는 교회건물에서 나와 바로 차를 몰고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건물이 보였다. 넓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동네 노인정이라고 했다. 백운역 할아버지가 계신지 찾아오겠다고 차에서 내리려하자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두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했다.

“야야. 인자 우리 고마 가자. 장계 집으로 가자.”

‘백운역 할아버지’에 대한 집착이 열어지신 게 분명해 보였다. ‘백운역 할아버지’는 그분에게 가서 침 한 대 맞고 일어나 걷고 싶은 어머니의 깊은 서원이 상징화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실했다.

감기 몸살이 나서 콧물이 흐른다고 콧구멍을 닦할 수 없듯이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구두 수선쟁이 ‘백운역 할아버지’가 난데없이 서울 여동생네 뒷집에 침쟁이가 되어 나타났다는 어머니의 주장을 판단력과 기억력의 잘못으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것이다.

판단력과 기억력 이전에 원 뿌리는 걷고 싶다는 데 있었다. 남들처럼 벌떡 서서 걸어 보고 싶은 것이다.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갇혀 살

기 싫다는 것이고, 바깥구경 좀 하자는 것이다. 걷고 싶은 것뿐이었는데 오줌싸개가 되어야 했고,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어야 했다. 아무도 어머니 하시는 얘기를 귀담아 듣는 이가 없다는 데서 증세는 악화되어갔던 것이다. 이것을 어찌 어머니 탓이라 하겠는가.

나는 어머니 손을 떼어 놓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잠깐 올라가서 찾아보고 올게요.”

어머니의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뒤로 하고 당당하고 부지런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밝고 깨끗했다. 번쩍거리는 전자제품들이 화려한 조명 밑에서 고객들의 시선 아래로 발가벗은 몸체를 뒤채고 있었다. 상냥한 점원이 뭐가 필요하시냐고 물었다. 내 몸을 어머니 눈 밖에 숨길 시간이 필요했다. ‘백운역 할아버지’로 상징화된 한 서린 어머니의 비원이 소멸되도록 기도할 공간이 필요했다.

내가 가는 발자국마다 빗물이 흘러내렸다. 바지는 물론 윗도리까지 젖어 있었다. 고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피로가 몰려왔다. 기대기라도 하면 잠이 들 것 같아 일어섰다. 매장을 하릴없이 몇 바퀴 돌다 종종걸음으로 트럭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백운역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있던지는 묻지도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다.

“백운역 할아버지가 종일 여기 노인정에서 놀다가 얼마 전에 저 아래쪽에 있는 식당에 가셨대요. 어머니, 멀지 않으니까 가 봐요.”

“됐다. 멀쩡한 노인네가 한 군데 가만히 있겠나. 가자. 인자 집으로 가자.”

“한 군데만 가보고요.”

“있으면 뭐 하노. 저 바빠서 나돌아 댕기는 사람 만나든 뭐 하노. 우리는 그냥 가자.”

나는 차를 몰고 모래내 시장 쪽 식당가로 갔다. 트럭에 앉은 어머니가 잘 보이는 곳의 식당들을 골라 두세 군테를 돌았다. 어머니 눈초리가 내 뒤 꼭지를 따라 다니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로부터 어떤 조짐 같은 게 왔다. ‘백운역 할아버지’의 명령이 완전히 사라지는 조짐이었다.

종일 물에 빠진 생쥐 꼴로 죽을 등 살 등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자식이 있는 이상 백운역 할아버지는 필요 없어졌나 보다. 아침부터 빗속을 뚫고 ‘서울’까지 와서 이곳저곳으로 ‘백운역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아들이 있어 어머니의 맺힌 한 덩어리가 절로 녹아 내렸는지도 모른다.

장계 집으로 차머리를 돌렸을 때는 하늘이 걷히고 석양의 온화한 햇살이 젖은 산천을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 마음은 자동차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다.

“집에 있는 달구새끼들 모시도 안 줘서 이것들이 배 고프겠네.”

“마당에 널린 게 먹을 것들인데 뭐가 걱정이예요.”

“주인이 있고 없고가 집짐승들한테는 그기 아인기라.”

“백운역 할아버지 못 만나서 영 섭섭하네요.”

“찾아 가도 없는 걸 오짜노.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아이가, 됐다.”

“인제 비도 안 오고 날이 드네요.”

“해 넘어갈 때 하늘이 빨강게 되면 가문다는 기라. 인자 비 안 올끼 구마.”

어머니 말씀처럼 비가 그쳤으면 싶은 만큼 어머니 머릿속에 따리를 들고 앉은 ‘백운역 할아버지’가 오늘 소낙비에 다 씻겨 나갔으면 싶었

다. 실제 이날 이후로 어머니 입에서 ‘백운역 할아버지’가 짝 사라져버렸고 이걸로 상징되는 한풀이식 고집세우기는 한참 뒤 딱 한 번 나타났다.

‘백운역 할아버지’로 상징되는 어머니의 이상 징후가 어떨 때 나타나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2008년 2월 말 경. 수삼 년 만에 찾아 온 몸살로 내가 몹시 아프기 시작했을 때였다. 어머니 김새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운역 할아버지’가 근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입길에 오르셨다.

어머니에게 ‘백운역 할아버지’는 고착화된 어떤 상징이다. 풀리지 않는 비원의 고갱이다. 근5개월 여 동안 ‘백운역 할아버지’가 단 한 번도 어머니 입길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비극의 종말이고 새로운 삶의 도약이었다.

잊혀졌으려니 싶었던 ‘백운역 할아버지’가 어머니 입에서 환생했다. 그 이틀 전에 이미 조짐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으시고 입맛을 잃고 짜증만 내셨다. 몸살로 앓아누운 내가 반신욕을 한다든가, 숲으로 들어가 진종일 산림욕을 한다든가, 작은 뒷방에 들어가 발가벗고 풍욕과 좌선으로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고 겨우 어머니 앞에 나타나면 어머니는 “너 어데 갔다 왔노?”라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셨다.

심한 몸살로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었던 한 주 동안 어머니는 내가 안 보이는 모든 순간을 공포와 절망으로 보냈는지도 모른다. 공포와 절망은 아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했다.

뒤쳐져서 수습하는 데에 급급하지 않고 한 발 앞서서 어머니보다 더 설치면서
상황을 이끌어 가면 어느새 어머니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고
상황의 전개를 주도하게 된 나는 자연스레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한껏 쏘아 붙이시고 오전 내내 돌
아누워 끄끄 앓더니만 나를 불러들였다.

“나 좀 일바씨라.”

굳이 나를 불러서 일으켜 앉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 결단을 내 보
이기 전의 징조임에 틀림이 없었다.

“가자. 오늘 서울 순이네 가야겠다.”

내가 뭐라 하면 막무가내로 쏘아 붙일 기세였다.

“백운역 할아버지한테 가 보자. 내가 걸어 땀기도 못하고 누워만 있
기 주이난다.”

어머니는 주섬주섬 챙겨 가지고 당장 나설 채비를 하셨다. 눈은 강
렬한 광채를 띠셨다. 광기라고 하는 게 옳아 보였다. 그런 눈빛이 되
는 때가 많다. 광기로 눈빛이 번득일 때를 눈여겨 잘 살펴보면 온몸에
서 동일한 기운이 풍겨남을 알아챌 수 있다. 이럴 때는 발산을 잘 도
와야 한다.

나는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정처 없이 떠돌았다. 아랫집 소 막사를
지나고 사과농장을 지나 우리 논이 있는 계로 오면서부터 들판엔 눈
들이 듦성듦성했다.

해발 600미터인 우리 집은 새하얀 눈들로 뒤덮여 있었지만 아랫녘
으로 내려올수록 봄기운이 역력했다.

차창을 열고 바람을 쐐었다. 어머니의 망상과 집착이 날아가라고
차창을 슬슬 내렸다. 어머니는 시원하다며 벽찬 숨을 내쉬셨다.

장계면과 접경인 계북면 길을 오르내렸다. 같은 길을 오르내리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논두렁 샛길로 들어가기도 했다. 어머니 주장에 따라 서울 사는 내 여동생 뒷집에 사신다는 ‘백운역 할아버지’네 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는 상황을 생생하게 연출했다.

그러나 ‘백운역 할아버지’를 향한 어머니 마음을 돌려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가 근 1주일을 앓으면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동안 어머니 가슴에 맺힌 소외와 버림의 불안을 떨쳐버리기에는 한두 시간의 자동차 여행으로는 부족했다. 잠시라도 차를 세우고 탄전을 피우면 어머니는 가차 없이 독촉을 하셨다.

“어서”

차를 돌려서 막막하고 고적한 산골길 국도를 질주했다. 갈 곳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내 편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이때 서울 사는 내가 아끼는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다. 간단한 안부전화였는데 내 막막함에 숨통을 틔어주는 원근과 같았다. 나는 아주 유쾌한 목소리로 “봄별이 좋아 어머니랑 나들이 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 순간 유쾌한 기분이 되어버린 나는 명백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상황을 주도할 것, 어머니의 요구에 이끌리지 말 것, 앞장서서 어머니 요구를 견인하면서 방향을 틀어버릴 것, 나는 그렇게 했다. 남원과 전주를 무대로 ‘서울’을 연출했던 기억을 되살린 것이다.

장계면 소재지 외곽으로 접어들었다. 장계 시장을 다녀오시는 아랫마을 할머니를 만났다. 어디 가냐고 하신다. 반색을 하시던 어머니는 대뜸 딸네 집에 간다고 큰소리로 말하셨다.

“딸네 집이 어디여?”

“전주, 전주에 우리 막내딸이 살아.”

서울이 아니고 전주라고 하시는 어머니 말씀에 내 귀가 번쩍했다.

다시 차를 몰았다. 어머니의 서울과 어머니의 막내딸은 어머니만의 세계에 파편처럼 나뉘어 있는 것들임을 드러내신 말씀인 것이었다.

희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는 농로 길로 접어들어 급경사 길로 차를 몰아넣었다. 녹지 않은 눈이 허영게 깔린 산그늘이 진 곳이었다.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헛 엑셀을 몇 번 밟다가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다. 눈이 미끄러워 차가 가기 어렵다고 엄살을 부렸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눈을 치워 내고 옆길로 차를 빼내는 시늉을 했다. 그래도 차는 움직이지 않고 헛 바퀴만 돌았다.

“어머니 저 언덕 위에 가 볼게요. 저 위에는 어떤지 볼게요.”

“하모. 하모. 가 봐라. 여기 고생해서 빠져 나간다케도 저 우에가 눈이 또 있으면 안되지. 어떤지 가 봐야지.”

차를 세워두고 올라간 언덕 위는 완연한 봄이었다. 가족묘원이었는데 드물게도 묘비의 비문이 한글로 씌어 있었다. 곱게 마른 잔디는 봄 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박새와 딱새, 노랑턱멧새가 묘원 앞 덩불을 날아 다녔다. 까치와 까마귀도 높은 나뭇가지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한참을 앉아 햇별을 쬐다가 자동차로 힘없이 돌아왔다.

“그라믄 오짜건노. 집으로 가자. 눈 녹으믄 가야지 뭐.”

언덕 위에는 눈이 더 많아서 엄두를 못 내겠다는 내 허위보고에 어머니는 차가운 내 손을 잡고 그래도 서울을 가겠다는 나를 만류하느라 울상을 지으셨다. 못 이기는 척 어머니의 설득에 넘어가 줬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백운역 할아버지의 ‘백’자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다.

백운역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기재를 정확히 알게 된 것이 큰 소득

이었다. 불안이 커지고 최소한의 욕망이 허물어졌을 때, 바로 그럴 때 백운역 할아버지는 벼락처럼 어머니에게 오시는 것이었다.

백운역 할아버지가 아니라 더한 요구가 있더라도 뒤쳐져서 수습하는 데에 급급하지 않고 한 발 앞서서 어머니보다 더 설치면서 상황을 이끌어 가면 어느새 어머니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고, 상황의 전개를 주도하게 된 나는 자연스레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었다. (끝) 

- 이 글은 '엄마하고 나하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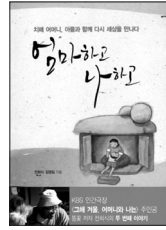
저자 | **전희식** | 1958년에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곡절 많은 학창시절과 청장년기를 거쳐 1994년에 전라북도 완주로 귀농했다. 치매가 있는 여든 여덟인 어머니와 둘이서 살지만 사정이 되는 만큼 대안교육과 대체의학, 민간신앙과 상고사상, 뇌과학과 양자물리학, 몸살림과 마음 살림, 생태학과 자연농법 등 존재의 '총체생명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로 일하면서 '보따리학교'와 '스스로 세상학교'일에 열성이다. 귀농생활을 정리한 책 『아궁이불에 감자를 구워먹다』와 치매 어머니와 함께 한 자연치유의 기록 『똥꽃』을 냈다.

역자 | **김정임** | 1922년에 태어났다. 경남 함양 서하의 한 마을에서 서당 훈장이신 아버지 밑에서 대어섯 살 때부터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심청전 등을 읽으며 자랐다. 5~6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였는데 시골에 내려와 살면서 몸과 정신에 긍정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2008년 1월에 KBS '인간극장'에 출연했는데 강단 있는 성격으로 유머와 재치가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다.

엄마하고 나하고

치매 어머니 아들과 함께 다시 세상을 만나다

저자 전희식, 김정임 | 출판사 한국농어민신문 김상우 | 정가 12,000원



KBS 인간극장 '그해 겨울, 어머니와 나는' 주인공 전희식의 두 번째 이야기

KBS 인간극장 '그해 겨울, 어머니와 나는' 주인공, 전희식의 두 번째 이야기. 『엄마하고 나하고』는 치매 어머니와 함께 한 자연 치유의 기록 〈똥꽃〉의 두 번째 이야기로, '한국농어민신문'에 두 해 넘게 연재되었던 것을 모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여든 여덟의 나이에 치매 증세로 다소 불편한 몸이지만 맑고 유쾌한 어머니 김정임 여사와의 알콩 달콩한 생활 속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작인 〈똥꽃〉이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와 시골살이를 시작한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치매에 대한 편견과 공포를 근본적으로 되짚어 주었다면, 〈엄마하고 나하고〉는 치매 어머니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낸 저자만의 치매 어머니 모시는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